

## DB월드뉴스(국내)

## DB뱅크

## 데이콤(천리안)

## 『데이콤무역자동화』 시범서비스 본격가동

- 5개 외국계은행과 14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인 (주)데이콤(사장:손익수)이 '95년 1월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데이콤 무역자동화』 시범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데이콤무역자동화』 시범서비스는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너럴 은행을 비롯한 5개 외국계 은행과 코오롱상사, 맥슨전자, 해태제과, 피어리스,(주)성안 등 14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최근 외국계 은행 전산시스템개발 전문업체인 (주)세명 소프트하우스를 협력사로 선정, 소시에테은행, 케미칼은행(미), 차타드은행(영), 홍콩은행(홍콩) 등 5개은행을 대상으로 EDI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짓고 국내업체 무역업체용 표준입출력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 &lt;신규동호회&gt; 여성학 동호회

여성학에 대한 각종 의견을 교류하고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게 될 “여성학 동호회”가 개설 됐다.

여성학 동호회는 여성은 물론, 남성도 동참할 수 있으며 여성학동회를 이용하려면 여성학동회(GO FEMI), 동호회 TOP 메뉴(SIG)의 10번 ‘전문/학술’ 분야 20번 ‘여성학동호회’ 선택하면

된다.(개설형태 : 비공개동호회)

## 청소년의 벗, ‘부산직할시 청소년 상담실’ OPEN

부산직할시에서는 천리안에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하고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와 이성 등 여러가지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친한 벗으로서 또는 선생님, 부모님 입장에서 청소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부산직할시 청소년 상담실을 이용하려면 부산직할시 청소년상담(GO BSCOUN) 천리안 TOP 메뉴 19번 ‘상담’ 분야의 7번 ‘부산직할시 청소년상담’ 선택, 서비스 내용으로는 상담편지, 상담 칼럼, 토론광장, 게시판(자유게시판)등 이다(부산직할시청)

## &lt;해외관광/박람회&gt; 해외관광과 세계의 박람회를 더욱 쉽게!

해외여행과 세계 각국 각종의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해외관광/박람회>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여행 출발정보와 주한 각국기관의 비자발급 정보, 해외여행 상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해외관광/박람회> 서비스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나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한 해외여행 정보이다. 해외관광/박람회 정보를 이용하려면 해외관광/박람회(GO WTOUR) 천리안 TOP 메뉴 14번 ‘여행/문화/가정/의학’, ‘해외관광/박람회’ 선택하면 되고 서비스 내용은 해외여행 출발정보, 항공사 예약전화번호, 주한 각국기관/비자발급 정보, 해외 전시·박람회 정보, 해외여행 상식, 한국여행신문 주요 뉴스 등이다.(제공기

관 : 한국여행신문사)

### 경영/경제의 문헌정보 최고 권위, 데이터 리서치 (DR)!

산업/기술 분야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지, 세미나, 연구보고 및 조사통계자료 등 경영/경제의 문헌정보를 제공하게 될 이 정보에서는 마케팅, 소비자, 광고, 디자인, 유통, 관광, 경영전략, 경영정보, 재무, 회계, 경제, 무역, 산업/기술 분야의 최신 문헌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준다.

경영/경제의 문헌정보를 이용하려면 경영/경제 문헌정보(GO DR) 또는 '교육/문헌/취업'의 41번 '경영/경제문헌정보'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단행본/연구보고 경영 경제,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국내외 간행 도서, 정기간행물 국내 200여종, 국외 400종의 정기간행물, 학회/학술지의 목차나 요약 수록, 세미나/강좌 국내외 기관에서 개최한 세미나/강좌 등을 소개, 석박사 학위논문 국내외의 경영 경제 전반의 학위논문을 매 학기마다 UP-DATE, 조사 통계자료 국내외에서 설문, 면접 등을 통한 조사 및 통계 자료 수록 등이다.(제공기관 : 데이터리서치)

- 'DR'에서 검색한 자료를 중심으로 본문을 실비로 제공하며, 보다 폭넓은 자료조사나 Field Research도 실시한다.
- 'SAS' 및 'SPSS' 사용자의 애로사항 및 폭넓은 활용사례를 본사 간행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및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받습니다." 코너를 운영한다.

### 대한민국법령데이터베이스 제공

우리나라의 법령 전 50권(법령 약 3000개)에 대한 법률정보서비스인 "대한민국법령데이터베이스"를 천리안을 통해 제공 한다. 전문 법령정보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법령데이터베이스, 현행 법령의 제정·개정된 내용은 법령 공포 후

일주일 이내에 수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영문법령'과 '대한민국 법령 연혁정보', 정보 검색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 '법령종합시소러스' 등의 서비스를 추후 제공하게 된다. 대한민국법령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대한민국법령데이터베이스(GO KOLD) 또는 '과학/기술/규격/법률/상표'의 26번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 정보등이다.(제공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헌법, 법률만을 제공하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은 상용 서비스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국회도서관] 정기 간행물과 석박사 학위 논문 정보 제공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90만건의 정기 간행물과 석박사 학위 논문 정보를 제목, 저자, 주제분야등으로 검색해 볼 수 있는 "국회도서관 문헌정보"를 제공한다.

국회 도서관 문헌정보를 이용하려면 국회도서관 문헌정보(GO NOLIS), 천리안 TOP 메뉴 8번 '교육/문헌/취업'의 42번 '국회도서관 문헌정보'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정기 간행물 문헌정보, 석박사 학위 논문 문헌정보 등이다.(국회도서관)

### <특허정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

특허 및 실용신안 정보와 특허관련 뉴스 등, 특허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이 정보에서는 특허 관련 전문가에게 온라인으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직접 상담할 수도 있게 됐다.

특허정보를 이용하려면 특허정보(GO PIS), 천리안 TOP 메뉴 13번 '과학/기술/규격/법률/상표' 부문 32번을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특허 및 실용 신안, 특허 안내(뉴스, 법률 등)

중소기업 특허 코너, 징검다리(게시판), 상담 등 이다(제공기관 : 윤의섭 특허법률사무소)

### 국내외 전자 정보의 모든 것, 전자신문 독자투고란 개설!

국내외 전자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전자신문에서는 천리안 회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을 기사화 해 드리기 위해 '전자신문 독자투고'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신문독자투고(GO OPINION), 천리안 TOP 메뉴 7번 '뉴스' 부문의 21번 '신문독자투고' 메뉴 중 11번에 위치, 전자신문(GO ET), 천리안 TOP 메뉴 7번 '뉴스' 부문의 22번 '전문/해외뉴스'의 1번 '전자신문' 메뉴의 15번을 선택하면 된다.(제공기관 : 전자신문)

### 하이텔(HiTEL)

#### '좋은 책의 발견' 20개출판사 참여

전도서 20% 할인판매 이벤트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동아출판사 등 20여개의 출판사가 연합, 도서 홈쇼핑 코너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다.

참여출판사는 동아출판사를 주축으로 나남, 문예, 사계절, 범우사, 열림원, 샘터, 창비, 행림, 민음사, 홍익 등의 20개 업체이며 계속해서 참여 출판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본 코너를 통해 주문하신 도서는 주문 후 3-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출판사측이 부담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초기화면에서 (16.주문/예약/홈뱅킹 -> 3.도서)의 순으로 선택하시거나, (2)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dap'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제4회 1천만원교료 정보사회논문공모

올바른 정보문화의 정착과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한국통신이 전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보사회에 관한 논문을 현상공모한다. 한국통신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에 패기와 역량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논문주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
- 정보통신의 발전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
- 환경보호와 정보통신
- 정보통신의 국제화 전략
- 차세대 통신기술의 발전방향
- 멀티미디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 유·무선통신기술의 상호 보완적 발전방향
-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정보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전화이용문화

위 주제와 관련된 부제를 선정,작성하여도 무방함.

■ 응모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문대생 포함)

#### ■ 응모요령

- 응모기간 : 1994.8.16-1994.9.30(우편접수시 마감당일 소인 유효)
- 논문분량 : A4용지 20매 내외(2-3매의 요약서 첨부)
- 유의사항
  1. 원고는 반드시 PC나 타자기를 사용 작성하여야 함.
  2. 다른 간행물,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품이어야 함.
  3. 저서,논문 등을 인용할 경우 원전을 밝혀야 함(번역논문 포함)
  4.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치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사가 소유함.

5. 겉봉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함.

○ 보낼곳 : 우편번호 110-7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한국통신 홍보실 논문현상공모담당자  
TEL.(02) 750-3086-7

### ■ 시상내용

구분	편수	시상내용
대상	1편	상패 및 부상 300만원
금상	2편	상패 및 부상 각 100만원
은상	4편	상패 및 부상 각 50만원
동상	10편	상패 및 부상 각 30만원

■ 당선작 발표 : 1994.11.18(금) 한국경제신문

■ 후원 : 한국경제신문사

### 정보문화의 달 인식조사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PC통신에서는 국내 최대의 컴퓨터 통신서비스인 하이텔이 우리나라 정보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이텔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정보화 사회의 선두에 서서 한국의 정보문화 발전에 한축이 되고 있는 하이텔 이용자의 의견은 우리나라 정보문화의 현주소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조사는 첨단 조사서비스인 하이텔 텔레리서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것으로 조사의 결과는 「꿈 따라」 6월호 지면을 통해 게재된다. 본 조사에 응답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TR -> 111.정보문화의 달 인식 조사 혹은 초기화면 12.여론광장 -> 2. 텔레리서치 -> 111.정보문화의 달 인식조사 하면 된다.

### 국가경쟁력강화 실천방안 토의

청와대큰마당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의 실천적 방안을 위한 토론”을 개설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양하고 나아가 21세기 선진국진입이라는 민족의 대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경쟁력강화”는 범국민적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천적인 방안 제시와 의견교환을 위해 청와대큰마당 주제토론장에 개설된 이번 주제에 이용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 청와대큰마당의 주제토론장은 어느화면에서든지 ‘go bluehs’하거나 또는 초기화면에서 -->12.여론광장-->11.청와대큰마당-->3.주제토론장하면 이용할 수 있다.

### 에이텔(주) POS-SERVE

#### [동호회] 바보상자 동호회 개설안내

현대인들이 가장 친숙한 대중매체인 TV. 대부분의 여가를 채우는 TV시청. 친숙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느니 만큼, 그 영향력도 크고 우리의 관심도도 높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는 동호회가 새로이 모습을 가다듬어 이용자에게 선보인다.

새로이 개설되는 바보상자 동호회는 좋은 TV 프로그램 추천, 시청소감 토의, 프로그램 안내, 공개프로그램 견학 등의 활동을 통해 흥미롭고 올바른 TV시청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GO FTV 또는 서비스메뉴 5. 교양/문화/종교의 3번 바보상자를 선택하면 된다

#### [CompuServe] 미국, 영국의 55개 신문기사전문을 제공합니다.

'94년 5월부터 CompuServe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55개 신문(전국지 및 지방지)의 전문을 제공하는 Newspaper Archives (GO NEWS-ARCHIVE)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제

공자는 미국의 다이얼로그사(Dialog Information Services, Inc.)이다.

이 신문 데이터베이스의 대부분은 198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광고나 매매 게시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한 토픽에 관한 기사를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각 신문에서 검색할 수 있다. 기사 검색은 기사의 헤드라인, 리드, 전문 중에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고, 검색용어 중에 와일드 카드 문자(\*)나 괄호뿐만 아니라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DOSCIM 2.2, WINCIM 1.2, MACCIM 2.3.1버전으로 CompuServe에 접속하여야 하며, 아스키로 접속하거나 하위 버전의 CIM 사용자들은 접속이 불가능하다.(MACCIM 2.3.1은 5월 중순경에 온라인 상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단 이 서비스는 한국시간으로 일요일 19:00- 월요일 03:00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서비스는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CompuServe의 PREMIUM 서비스이며, 접속시간에 따른 요금 (스탠다드 방식인 경우 시간당 4.80달러(약3,840원)) 외에도 기사 한 건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는데 1.50달러(약1,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정보서비스 개시

전국의 살아있는 뉴스를 시시각각 공급하여 조석간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일보와 경제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경제신문의 정보를 신문보다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다. 이미 그 뉴스가 현장에서 기사로 작성되는 즉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의 살아있는 소리는 POS-Serve를 통해 여러분께 전달 될 것이다.

한국일보/서울경제 신문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TOP 메뉴중 11. 뉴스/스포츠/기상 → 9. 한국

일보/서울경제를 선택하면 된다.

### <일간스포츠> 정보서비스 개시

경기를 직접 관람 못하셔도 수시로 보도되는 스포츠 경기소식과 각종 다양한 문화, 레저정보로 여러분의 여가를 더욱 활기있게 하기위하여 <일간스포츠> 신문정보가 회원 여러분곁으로 한발 다가선다. 일간스포츠정보를 이용하려면 TOP 메뉴중 11. 뉴스/스포츠/기상 → 11. 일간스포츠를 선택하면 된다.

### <언론종합정보은행>정보명이 <중앙일간기사>로 개명

9대 종합일간지의 신문기사, 언론인명, 언론기관정보를 종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서비스하고 있는 <언론종합정보은행> 정보가 <중앙일간기사>로 이름을 바꾼다. '94년 5월부터 새로운 이름 <중앙일간기사>로 제공되는 언론 DB정보는 이전과 같이 GO KINDS 하시면 바로 연결되어 이용하실 수 있다.

## 국정뉴스

### 경제기획원

### 초고속 정보망 범부처 협력에 십마리

지난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열린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14개 부처 실무자회의에서 각 부처는 체신부에 설치된 기획단과 향후 구성될 전담반과의 연계, 협력방안 모색에 일단 합의, 각 부처간 공동보조의 십마리를 마련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열린 초고속정보통신망 실무자회의의 내용과 관련, "참석자들이 체신부에 설치된 초고속정보망 기획단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혀 그동안 초고속통신망 구축 주도권을 놓고 일어난 각 부처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실무대표들은 또 6월초로 예정된 차기 실무자회의에서 기획단과 각 부처 전담반과의 연계협력 및 협의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6월중 기획단 및 부처별 작업계획서가 당초 예정대로 작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 작업계획서에는 \*문제의 제기 \*작업의 범위 및 방향 \*작업 일정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 체신부

### 내년도 투자. 출연지침 통신사업자 R&D비 늘려

체신부는 내년도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올해보다 매출액 대비 1% 포인트 증가한 7~9%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매년 3천 5백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해 정보통신업계의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체신부가 마련한 “95년도 기간통신사업자 투자. 출연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선진화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오는 2001년 까지 10%로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통신사업자의 연구 개발 투자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올해의 6%에서 내년에는 7%로 인상되며 데이콤 8%, 한국이동통신 9%로 각각 1%포인트씩 증가된다. 체신부는 또 제2무선호출사업자의 연구개발비도 당초 허가신청시 제출한 연구개발추진계획에 따라 출연하고 오는 99년부터는 10%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토록 했다.

체신부는 또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4년간 총

1조3천4백30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및 정보통신분야의 기초기반기술에 출연,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대금과 배당금·전과사용료·기간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체신부는 또 기간통신사업자별로 연구개발비의 10%이상을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인력육성을 위해 투자토록 했다.

### 기간통신망, 우회소통-전송로다원화등 의무화

**\*\*체신부, 대형사고방지 통신망종합관리지침 제정\*\***

전화, 데이터통신, 이동통신등을 위해 통신망을 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통신장애등 비상시에 대비, 주요 통신망의 우회소통로 확보와 교환국등의 분산설치, 주요 전송로의 다원화가 의무화된다. 또 주요 통신회선의 자동절체시스템, 집중운용보전시스템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시설에 관한 DB(데이터베이스)구축 등 통신망관리의 전산화와 함께 통신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체신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지하통신구화재와 같은 대형통신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이같은 의무를 지우고 비상시 통신소통 및 긴급복구를 지휘할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통신망종합관리지침을 24일 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지침이 적용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제2무선호출사업자, 한국항만전화등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통신망 운용에 관한 협의기구로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내외 및 국제통신망은 우회소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망이나 타사업자 통신망 또는 사설망을 이용하는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장애시 자체망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타통신망활용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다.

또 주요 시외교환국 시설은 다수 지역에 분산 배치하고 국제관문국 교환기도 적절하게 분산 설치하며 위성지구국시설도 상호간 절체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전송로중 지역교환국과 시외교환국간, 시외교환국 상호간, 시외교환국과 국제교환국간은 유선 또는 무선망으로 다원화하고 주요 전용회선과 전산망회선의 경우 다원화 또는 자동절체기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국제전송로는 해저광케이블과 위성등으로 다원화해 상호절체, 연동기능을 갖추되 장애시에 대비, 외국의 중계시설을 활용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통신내에 설치하는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는 통신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간 통신망종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운용관리의 전산화, 주요 통신 시설의 설계도서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체신부에 설치하는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는 통신정책심의관(7월이후 정보통신진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고 전자통신연구소내에 기술지원팀을 두게 되는데 사업자간 통신망활용협약이 안될 경우 조정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 상공부

### 정보산업발전 세부계획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3~5개년 단위의 핵심과제 개발을 통해 정보 산업의 선진화를 이룬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산업 관련 기술정책을 크게 수정한 정보산업 기술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상공 자원부는 현재 정부의 정보산업관련 기술개발정책이 프로젝트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 인력기술정보 등 개발

여건 조성이 미흡하며 장기비전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술혁신에 부응한 7대 핵심 전략기술 과제의 집중 개발과 3대 기술선도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정보산업 발전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주도의 추진전략에서 탈피, 정부는 전략적인 부분만을 한정적으로 지원 하고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이원적 정책을 펴나가기로 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형태에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체제로 전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국책 프로젝트는 서비스·관련 기기·소프트웨어 등이 일괄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의 사전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공부는 정보산업 발전의 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멀티미디어 \*디지털 응용기술 \*시스템 기술 \*신컨셉트 전자·정보기술개발 \*핵심부품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등 7개 분야를 핵심기술 과제로 선정하고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분위기 정착을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발전 계통도 작성 \*시험평가기술의 확립을 통한 개발 촉진 유도 \*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사업 등 3대 기술개발 선도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재 작성중에 있는 기술발전 계통도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립공업기술원이 연구과제로 소프트웨어 평가 기술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돼 전자 재료 및 소재의 시험평가기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술혁신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기반에 관한 법률” 제정시 정보산업 기반구축 기능의 최대한 반영 \*전자부품종합기술 연구소를 전자정보 기술개발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백5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자금 확보 \*정보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수급방안 마련 \*기초기술 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개발 재원의 다양화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 과학기술서

### 한·미 과학기술협력포럼

우주항공 및 유전공학, 지구환경, 반도체장비 및 소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한·미 양국간 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과기처는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포럼을 개최,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과제 도출과 함께 이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한·미 과학기술협력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한·미 과학기술 협력 포럼에서는 “국가적 연구개발과제추진과 한·미 협력” “원자력, 항공 우주, 유전공학, 지구환경분야 등 대형 R&D 사업에서의 한·미협력” “한·미 첨단 산업기술협력방안”등에 관한 주제 토론을 통해 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및 향후과제를 모색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등에서 실질적인 한·미간 연구 협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과학기술 재단은 지난 74년 6천만달러의 양국정부 공동출연에 의해 설립된 미국·이스라엘 과학재단(BSF)과 78년 같은 규모로 설립된 미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BIRD)을 협력모형으로 추

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포럼 기간중에는 양국 민간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의·상담 장소로 테크네트워크실이 마련돼 한·미 양국간 산·학·연 및 정부간 장기적인 과학기술협력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테크네트워크실에는 우주·항공, 원자력, 전자 등 첨단산업, 생명공학·환경·기초과학등 4개분야 별로 나뉘어 참여를 희망한 양국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전시용 보드, 팜플릿, 소책자 등의 전시와 함께 공동연구, 기술교류, 정보교환등을 위한 협의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3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한영성과학기술처차관, 신진욱 국회 경과위 위원장, 나용배 한·미 의원과학기술 통상협회 회장 및 삼성전자, 금성사등 기업 경영자들이 참가 하며 미국측에서는 존H 기본스 대통령과학기술고문, 어니스트 F 홀링스 상원 과학기술 우주위원회위원장, 데이비드 J 배럼 상무부차관 및 록히드, 마틴마리에타, IBM, AT&T, TI 기업체 대표등 3백여명이 참가한다.

## 감사원

### '정보센터'설치키로

감사원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감사시스템을 과학화하고 정부의 첨단정보시스템사업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내에 상설기구인 국규모의 「정보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사회각분야에서 이미 컴퓨터등 각종 첨단장비를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등 빠른 정보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차원에서는 추진실태가 미흡,국가경쟁력강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가행정전산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첨단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제고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에서 정보화관련감사업무를 우선 과제로 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첨단화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기구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局규모의 정보센터설치에 이은 일부 조직개편도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보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미 구성된 「첨단정보시스템특별감사반」의 운영성과를 분석, 이를 토대로 내부전문가는 물론 외부전문인력도 대거 초빙하고 관련첨단장비도 구입할 계획이다.

정보센터에서는 앞으로 △국가사무전산화촉진 및 대국민서비스개선을 위한 전산장비도입관리실태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산자료의 조작 및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등 불법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또한 △감사대상업무와 예산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관련정보시스템을 개발, 체계화하고 △정부예산 회계 및 취약업무관련감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허청

### 행정전산화 예산조정 및 내년 예산 1백23억 책정

지난 92년 시작해 오는 98년까지 완료키로 예정된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계획 총투입예산이 당초의 4백45억원의 약 두배인 9백25억원으로 확대 조정됐다. 특허청은 최근의 국제적 지재권 강화 분위기와 산업계의 전산 특허서비스 요구에 부응, 특허청 전산화사업에 대산업계 전산서비스부

문을 추가하는 등 전산화사업을 확대조정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당초에 계획된 특허청 전산화 7개년사업 예산 4백45억원에 대산업계 전산서비스부문 예산 4백80여억원을 추가 책정한 9백2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특허행정전산화를 완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이 특허전산화 7개년 계획에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한 대산업계 전산서비스사업예산(95~98년) 내역은 전산기제도입비 3백7억원, 업무 개발비 8억원, 자료 축적비 1백20억원, 운영비 45여억원등으로서 내년부터 당초 계획보다 연평균 2백3억원씩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 특허행정 전산화사업 4년째인 95년도의 특허 전산화예산 요청액을 당초보다 33% 정도 증가한 1백23억원으로 늘려 경제 기획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특허청이 이달말까지 제출하게 될 내년도 특허전산화예산 1백23억원의 내역은 특허청전산화부문 96억원 등이다.

## 공공뉴스

## 한국통신

### 한국통신의 인력확충이 시급

한국통신이 최근 실시한 인력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 82년 회사 발족후 지난해말까지 시설은 연평균 16.4% 증설된 반면에 인력은 4.7% 증가에 그쳐 시설관리등에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말 현재 한국통신의 직원 1인당 관리시설수가 지난 82년 99회선보다 무려 3배를 넘는 3백31회선인 상황이다.

특히 ISDN(종합정보통신망)·IN(지능망) 등 각

중 첨단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신규 서비스중 비디오텍스의 경우 오는 2001년에는 가입자가 4백90만명에 달해 상용 서비스에 나선 지난 91년에 비해 무려 44.6배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산되는등 대부분의 신규서비스 가입증가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지난 92년 4달에서 오는 2002년에는 6달로 늘어나고 연구소도 6개에서 12개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정보망, 잦은 고장으로 가입자 "골탕"

한국통신의 종합정보통신망(ISDN)서비스가 상용화된지 6개월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말 전국 11개도시 69개 전화국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선 하나로 음성통신 팩시밀리 컴퓨터통신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ISDN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해본 이용자들은 한국통신의 선전과는 달리 고장이 잦고 일반전화보다 뛰어난 ISDN기능을 당장 이용하기 힘들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 한 사용자는 『ISDN에 가입한지 두달만에 5번이나 고장이 났는데 전선의 접속이나 전화 기고장이 아니라 전화국의 교환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한번 전화가 고장나면 몇시간씩 불통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용자는 『ISDN으로 고속컴퓨터통신 하려면 S카드를 내장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아직 이를 판매하는 곳이 없다. 또 하이텔 천리안등 통신망서비스에 ISDN으로 접속하지 못하므로

일반전화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ISDN서비스가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다.

한국통신 申東浩경영기획실장은 『애당초 ISDN 주력교환기로 TDX-10 대용량교환기를 선정했으나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중용량교환기인 TDX-1B에 ISDN 기본기능만을 탑재해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전화망과 데이터망을 하나로 결합한다는 ISDN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서울을지 북대전 신제주등 3군데 전화국에만 교환기를 설치하고 임시회선으로 별도의 ISDN망을 구성하다보니 기존 통신망과의 연결이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통신은 뒤늦게 현재의 임시방편적인 ISDN망의 확장을 억제하고 기술개발이 이뤄지는대로 공중통신망을 ISDN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ISDN개선계획』을 마련했다. 따라서 97년까지 ISDN 전국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의 ISDN 가입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불안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93년 상용화」라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통신은 자신없는 서비스를 내놓아 사용자들만 골탕먹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한국통신기술협회

### 통신기술협 조직개편 추진

한국통신기술협회는 국내표준화부문과 국제표준화부문으로 분리해 운영해 오던 종전의 이원화된 조직체계가 효율적인 국내의 표준화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국내표준 제정을 위

한 “표준화분과위원회”와 국제표준연구를 위한 “연구분과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정비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내의 표준화 위원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우선 표준화 관련 분과 위원회만을 통폐합해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실무·전문·연구위원회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실무 위원회는 현재 수행중인 표준화과제를 완료할 때까지만 존속하고 과제 종료 후에는 폐지하며 내년부터는 연구위원회에 국제표준연구, 단체표준(안) 작성 및 표준초안 개발기능을 모두 부여해 단일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분과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연구 위원회를 설치해 표준화 중장기계획·지적재산권·용어표준화 및 표준정보망 연구를 전담 토록하고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협력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상호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APT(아·태지역 전기통신협의체)등 국제표준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WTSC·WRC·GSC 등)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은 국제협력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TSAG 및 RAG는 기획분과위원회에서 맡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데이터망 및 텔리마틱 분과위원회와 개방형 상호접속 분과위원회간에 중복이 되는 표준화 과제는 데이터망 및 텔리마틱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ETRI, 해외우수인력 DB구축키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가 외국과학기술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구체적인 신상 및 연구 활동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ETRI(소장 양승택)는 23일 외국의 우수과학기술자들을 전문가 초청강연회 및 세미나, 국제공동연구, 해외위탁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과학재단이 국내 이공계 대학 교수 및 연구원들의 인력을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외 우수인력 DB는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과학기술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국내의 연구활동과 연계시키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따라서 ETRI가 이번엔 해외우수인력 DB를 구축케 될 경우 외국과학 기술자들의 세부적인 논문제목은 물론 최근의 연구동향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해외정보를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과 함께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TRI는 해외전문인력의 DB구축을 위해 최근 DB 수록내용과 형식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PC용 DB 소프트웨어(SW)를 개발 완료하고 이를 미·일 등 해외사무소에 각각 보내 본격적인 해외우수인력의 DB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해외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수집한 인력자료를 DB화 하는 한편 아직 입수되지 않은 우수인력을 적극발굴하는등 DB내용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덕 본원에서는 해외 사무소로부터 전자메일로 속속 입수되는 각국의 우수인력 DB를 가공, 중앙컴퓨터에 저장한 뒤 소내 정보통신서비스인 “IDEA”를 통해 연구원들이 손쉽게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한국여성정보연합회

## ‘교육용소프트웨어 페스티벌’ 개최

한국여성정보인협회(회장 이기호)는 오는 6월 25-26일 양일간 이화여대 경영관 홀에서 ‘교육용소프트웨어 페스티벌’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체신부와 한국정보문화센터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컴퓨터학습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시키고 미래 교육정보환경조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회, 세미나, 관련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국내 교육용 소프트웨어 제작사 20여개업체가 70여개 작품을 출품하며 특히 장애아를 위한 교육용소프트웨어도 10여점 선보인다. 세미나에서는 ‘교육용소프트웨어 이대로 좋은가’(한양대 교육공학과 유원영 교수)와 ‘장애아와 컴퓨터’(<주>푸른하늘을 여는 사람들 김광선박사)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 기간중에는 또 컴퓨터구매, 컴퓨터교육 등에 관한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다.

## 국내DB일반

### 전경련 보고 ‘정보산업관련 경쟁력실태’ 주요내용

전경련의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 5차확대 회의에 보고된 “정보산업관련 경쟁력실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산업=국내정보통신 사업은 지난해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모두 시장규모가 2백70억달러에 규모에 달한다. 연평균성장율은 분야별로 최고 연평균 31.4%에 달하는 성장 산업이다. 또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기기등은 수출주력 상품으로 발전 전망도 좋다. 그러나 수출 실적에서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최고 7분의 1까지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보유면에서는 인도에도 뒤지는 실정이다.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들은 우선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며 개발과 업체간 전략적 제휴도 서둘러야 한다. 또 국민의 정보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퍼스널컴퓨터=국내 퍼스널컴퓨터(PC)산업의 경쟁력을 보면 핵심부품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설계와 생산 기술의 경우 미국에 비해 각각 3%, 5%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노트북 PC는 가격기준 국산화율이 1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PC설계, 기관등 비교적 앞서 있는 부분도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뒤져 비교 우위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이익율도 낮아지고 있다. 컴퓨터 관련 기술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 축적이 우선되어야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등 사전 조정작업도 시급하다. \*위성통신용 세라믹 필터=세라믹 필터는 무선통신 수신을 위한 통신 기기의 핵심 부품이다. 무선통신 기기의 급증과 함께 국내 수요가 연평균 50%이상 늘어나는 성장 유망상품이다.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인 세광세라믹은 소재, 품질, 가격등에서 선진국에 준하는 기술능력을 갖춰 최근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91년 8만달러의 매출에서 금년에는 2천5백만달러로 늘었는데 대량생산체제의 구축과 해외 판매망 확보로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전자교환기=생산의 대부분을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또 시장은 주로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집중돼 있다. 전전자 교환기의 구매자는 대부분 국가 기관이라는 점도 중요한 시장 특성이다.

따라서 우리업체들의 시장전략은 가격 우위를 내세운 현지화에 집중됐으며 합작사업의 확대 관련제품과의 연계 판매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서비스=국제및 국내전화선과 데이터통신망 서비스는 과점산업이다. 그러나 부가통신서비스는 완전경쟁시장으로 외국업체들에게

도 완전 개방되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의 개발과 축적이 급선무다.

### “멀티미디어 산업발전 위해선 대형프로젝트 적극 지원해야”

국내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의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대형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제작사와 유통 업체간의 협력관계유지, 독창성있는 오락용 SW 개발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자영상문화협회(회장 윤원석)와 문화체육부 공동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첨단영상과 가정문화”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영택 서울대교수(컴퓨터공학)는 “국내 제작기술의 현주소”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멀티미디어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기술취약, 협소한 내수시장,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전략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기술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형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일반국민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홍보 강화, 제작사와 유통업체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유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스틴 E 허버 미버진사 부사장은 “전자영상기술의 현재와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의 비디오 및 PC게임 소프트웨어시장규모는 약 5백50억달러에 이르는등 날로 팽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같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창성있는 오락용SW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버 부사장은 “현재까지 미국시장에 보급된 약 5백60만대의 CD-롬 드라이브 가운데 3백60만대가 가정용으로 보급되어있어 오락용SW의 수요는 더욱 커질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5년간 미국의 가정용컴퓨터환경이 멀티미디어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겨냥한 외국 기업들의 전략적인 동맹과 협력관계, 미국기업의 인수 등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공운위원장은 첨단산업의 윤리성과 관련, “지난해 7월1일부터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공륜에서 첨단영상매체의 내용을 심의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현재 마련중인 영상산업진흥법에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자 YWCA 활동부장은 “첨단영상 매체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기능을 제공해주는 반면 이용 대상에 따라 각종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며 “사용자가 올바른 문화수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체에 대한 교육과 시민단체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정보공학 DB구축 완료

한국정보공학(주)(대표 유용석)이 자체 개발한 RDBMS(관계형DB관리시스템)인 “미래로”를 바탕으로 학술진흥재단의 학술DB구축을 마쳤다. 한국정보공학은 학술진흥재단과 지난해 10월 “학술정보시스템”의 DB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작업등을 추진해 최근 설치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성사의 타이컴을 서버로 하고 DBMS로는 한국정보공학의 RDB와 MJL의 인그레스를, 클라이언트 톨로는 “미래로”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학술진흥재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학술연구인력, 문헌, 외국 학술지, 학술·연구 지원내역 등에 관련된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 검색을 위한 지시어만으로 관련된 문헌, 기사, 문서를 문헌의 제한없이 한꺼번에 검색해 차례로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고 국한문 혼용검색도 가능하다.

학술원이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중 인물정보관리부문은 연구인력의 인적 사항, 학력, 경력, 논문, 저서, 연구비수혜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학술지관리는 학술지 기사색인·외국학술지종합목록·외국박사학위논문초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술연구 지원관리는 연구비지원현황·연구책임자·연구과제 등을 자세한 세부항목으로 구분, 관리할 수 있다.

### 한국의료정보 종합정보시스템공급

한국의료정보(대표 한경돈)가 내년 1월 서울 노원구에 개원할 예정인 노원을지병원(이사장 박영하)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급한다. 한국의료정보와 을지병원은 최근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의료정보는 노원을지병원에 HP3000/987 중형컴퓨터 1대, PC터미널 2백4대, 프린터 1백50대 등 12억원상당의 하드웨어와 현재 대전을지병원에서 운용중인 자사의 병원소프트웨어패키지 "KOSMOS"를 바탕으로 병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원무업무·관리행정(회계관리·재고관리·약품관리·급여관리 등), 진료지원업무(주사실·검사실·방사선실·영상실·간호실·수술실·물리치료실 등), 처방전달 등 병원업무 전반을 포함하는 의료기관용 종합정보시스템이다. 특히 처방전달프로그램은 GUI(그림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윈도를 채택, 사용자가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고 의사들이 처방·보험규약정보, 약·주사처방 효과정보 등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의사들이 처방내용을 손쉽게 작성,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일단 작성해 입력된 모든 정보는 경리·회계·청구시스템으로 자동연결돼 환불·반품에 대한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된다. 한편 을지병원은 노원을지병원의 개원과 함께 을지병원·대전을지병원·노원을지병원의 원활한 병원간 의료정보송수신을 위해 노원을지병원에 통합 전

산실을 두고 전용회선을 통해 세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다.

### 제13회 KIECO 전시회개막

제13회 국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시회(KIECO)가 5월 17일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막됐다. 이번 전시회는 5월 21일까지 5일간 '94 멀티미디어쇼와 사무용기기·이미지쇼가 한데 통합돼 열리는 올 상반기 최대의 컴퓨터업계 경연장이다.

관객들은 이날 오전 10시 개막식 직후부터 물리기 시작, 오후 2시경에는 수천명이 입장해 전시장 전체를 가득 메웠으며 주로 첨단컴퓨터 신제품과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관객들은 올해초부터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각종 CD-롬 타이틀(원반소프트웨어)과 삼보컴퓨터가 최근 발표한 '똑딱Q'를 비롯한 주요 회사들의 멀티미디어 PC를 보고 기술급변추세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 美 오토데스크社, 국제그래픽공모전 개최

美 오토데스크社가 94년도 그래픽 국제공모전을 개최, '오토캐드'(Auto CAD)를 비롯한 자사제품 사용자들의 출품작을 오는 8월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제2회 이미지.애니메이션 국제공모전」은 CAD/CAM(컴퓨터지원설계/제조)및 컴퓨터그래픽 분야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겨루는 행사로 지난해 열린 제1회 공모전에서는 국내 출품자들이 총 12개부문중 4개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공모전의 부문별 1위 수상자들은 미화 1천 달러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 수상자는 4박5일간 미국에서 그래픽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왕복항공권과 현지 체재비가 지원된다.

출품문의처 : (02) 527-0790 오토데스크 코리아.

## “교육용컴퓨터 대부분 XT..기종교체 필요”-교계 원 포럼

지난 89년 시작된 교육용 컴퓨터 보급이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에 일단 마무리되게 됨에 따라 교육부의 초,중,고교 컴퓨터교육이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개최한 “교육용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과제” 포럼에서 서울대 나일주 교수(교육학과)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된 교육용컴퓨터가 쓸모가 크게 줄어든 XT기종이어서 기종교체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들어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최신 기종인 멀티미디어용으로 개발되고 있어 XT기종의 용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교육용 컴퓨터는 사무용보다 오히려 높은 성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초,중,고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을 내년에 중단한다면 학부모들로부터 컴퓨터를 기여받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로부터 컴퓨터를 대여 받아 수업에 활용한 뒤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되돌려 주는 “학부모 대여제도”도 제안됐다.

## 국회의원들 사이에 PC통신 이용 유권자접촉 인기

“PC통신으로 표발을 일군다.”

현직 국회의원들 사이에 첨단 컴퓨터통신을 이용,유권자와 접촉하는 PC통신이 인기를 모으면서 의원들이 다투어 하이텔,천리안 등 PC통신에 의정활동 보고 코너를 개설하고 있다.

민주당 이철 의원이 지난 16일 천리안의 “국민의 소리(VOICE)”란에 “국회의원 이철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의정보고 코너를 개설한데 이어 민자당 김덕룡 의원도 17일 천리안에 “김덕룡 의원 PC열린 마당”이라는 코너를 열었다. 이철 의

원은 하이텔에도 이달중 같은 코너를 개설키로 계약을 체결했고 신정당 박찬종 대표는 천리안을 통해 24일 “박찬종과 함께”라는 컴퓨터통신을 개시한다.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과 노무현 최고위원도 이달중 하이텔의 “여론광장”(POLL)내 “정치포럼”에 자신의 PC통신 코너를 개설키로 한국 PC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의원들은 PC통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철 의원은 “이철 의원과 커피 한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동호회 모임터”등의 제목으로 유권자와의 대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박찬종과 함께” 코너는 박찬종 의원의 영문 이니셜중 PC를 따서 “요즘 PC는”, “의원과 건담”, “키보드 따라서”등 기발한 부제들이 눈길을 끈다.

“김덕룡 의원 PC열린 마당”이나 “이부영 열린 의정마당” 도의정활동 홍보와 토론장등 비슷한 메뉴로 유권자들을 만나는 마당이다.

노무현 전의원이 개설할 “노무현 포럼” 코너는 특히 회사원, 학생, 주부등을 대상으로 후원회, 벼룩시장, 주부코너, 직장인 코너등 단순한 홍보를 떠나 실질적으로 재미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의 반응도 활발하다.김덕룡, 이철 의원 등의 코너에는 유권자들로부터 다양한 내용의 편지들이 들어오고 있다. 등록된 편지내용을 보면 “참된 친구가 되어 달라”는 격려에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소식을 전하라”는 주문, “현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구체적인 질문까지 내용도 가지가지다. 국회의원들의 PC통신바람은 작년에 개설된 “청와대 큰마당”(BLUEHS)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데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코너는 PC통신 가입자들에게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수천통의 전자우편이 쇄도하는등 큰반향을 일으켰다. 이 내용은 “우째 편지가 이리 많노”(동광출판

사)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미국의 PC통신 망 “컴퓨터서브”의 “백악관마당(Whitehouse Forum)”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현대판 직접민주주의인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 “모뎀정치(Mode mocracy)”가 국내에서도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 전국서 108건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가 오는 6월1일 기념식 및 정보문화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6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금년에는 한국정보문화센터 주최, 체신부 및 문화체육부의 후원아래 정보통신관련기관, 단체, 기업등 모두 38개기관이 참여해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전시, 시범 및 시연, 학술, 공모행사등 108건의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비해 참여기관은 4개기관이 늘었으나 행사는 13건이 줄어든것으로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국제화-개방화등에 대응한 국민적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주제로 내걸었다. 올해는 예년의 이론이나 강연 위주의 행사보다 시연행사 위주로 진행하며 특히 미래정보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대상행사와 농어촌 주민 대상의 시연회, 농산물유통망 구축세미나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정보화관련행사가 많이 열린다.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은 한국컴퓨터그래픽스협의회, 호남대학교, (사)미래사회정보생활, (주)월드매너워, 하이텔 원로방등 5개기관이다. 올해 행사를 유형별로 보면 시범프로젝트 및 우수사례시연회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농어촌컴퓨터교실 개소식 20건, 학술행사와 강연회 각 17건, 공모행사 10건, 홍보-초청 9건, 전시회 8건, 기념행사 3건순이다.

주요 행사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24-28일 한국종합전시장), 아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25-26일 이화여대), 청소년 컴퓨터수련대회참가를 위한 경진대회(27일부터 전국 7개 도시), 제1차 원로방 전국대회(30일 전국 5개 도시)와 전국 8개 지역정보화추진 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정보시스템시연회 등이 있다.

행사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0건, 충남-대전 12건, 경남-부산 11건, 전남-광주 10건, 경북-대구 8건, 전북 7건, 경기-인천 및 강원 각 6건, 제주 4건, 충북 3건이며 공모행사등 전국적인 행사가 11건이다. 지금까지 정보문화의 달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88년 10만여명, 89년14만명, 90년 17만명, 91년 22만명, 92년 69만명, 93년 7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올해는 약 7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제6회 정보문화대상에 육군전산소

\*\*\* 보급상 인디텔, 기술상 오길록, 교육상 민진규씨 \*\*\*

육군 전산망사업을 주도하면서 육군 공통업무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전군에 보급-확산시킨 육군전산소가 영예의 정보문화대상을 받게 됐다. 또 정보문화보급상은 국내 최초의 지역정보통신망인 ‘인디텔’을 개발-운영해 온 인천정보통신센터, 기술상은 국산 주전산기개발에 공이 큰 전자통신 연구소 오길록박사(48), 교육상은 민진규씨(42/경남 산청 단계국교교사)가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

체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는 24일 제6회 정보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6월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갖기로 했다. 정보문화상은 올해부터 훈격이 격상돼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천만원, 보급상 기술상 교육상에는 각각 국무총리상과 단체 5백만원 개인 3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 전원에게 부부동반(또는 동행 1명)의 해외시찰기회가 주어진다.

## DB월드뉴스(국외)

### 미국 콤팩트, 유럽 PC시장서 IBM 제치고 선두

미국의 콤팩트가 유럽 PC시장에서 최대 라이벌 IBM사를 제치고 선두자리에 올랐다. 월 스트리트 저널과 데이터퀘스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콤팩트는 지난 14분기중 서유럽에서 판매된 2백70만대의 PC 가운데 11.8%를 팔아 시장점유율에서 IBM의 11% 보다 0.8%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IBM은 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2.8%로 수위를 달린 반면 콤팩트는 10.8%로 그를 이었었다. 콤팩트의 이같은 선전은 가정 및 중소기업용 PC시장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대기업고객들을 겨냥해왔던 시장전략을 바꿔 일반 수요층을 과고들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유통망을 정비한 전략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콤팩트의 올 1분기 동안 일반소비자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매액은 전체매출액의 15%를 차지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콤팩트가 유럽전역에 걸쳐 유통조직망을 확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판매가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IBM은 신규모델에 대한 시장전략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었을뿐 아니라 수급예측도 빗나가 선두자리를 콤팩트에 내주게 됐다. 시장분석가들은 만약 IBM이 신제품인 PS/2에 대한 수요자들의 공급요청을 제 때 수용했다면 콤팩트보다 2.4% 포인트 높은 시장점유율로 선두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의 뉴비즈니스> 문서파쇄기 폐지로 화장지 재생

\*\*\* 원료-판매코스트 "0"... 이익률 20%

\*\*\*

이 세상에 버릴 것은 없다. 오히려 버려지는

것이 상식인 곳에 황금이 묻혀 있다.

요즘 웬만한 기업 사무실이나 은행에 가보면 컴퓨터를 갖추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컴퓨터가 있는 곳엔 기왕의 서류나 장부는 없어졌지만, 곳곳마다 컴퓨터 용지상자와 사용후 잘게 썰어 버려지는 '슈레디드' 폐지가 쌓여있게 마련이다.

팩시밀리 사용도 급증하면서 사무실 쓰레기는 감열지와 봉투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 슈레더를 통해 잘게 잘라지는 폐지와 감열지 폐지는 재활용을 비롯한 이른바 정맥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그동안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사무 쓰레기였다. 대부분 전속 청소회사에 위탁해 소각처분되고, 사무실측은 청소회사에 별도 처분료를 물어야 하는 골치 아픈 쓰레기이기도 했다.

이처럼 버려지는 쓰레기를 '황금줄'로 엮어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하나있다. 명광상회라는 슈레더 기계 제조-판매회사다.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슈레더 폐지 등을 모아 소각처분하는게 아니라 이를 다시 재생지로 만들어내는 신기술을 비즈니스에 연결했다.

이 회사 고객인 일본홍업은행의 경우, 연간 발생하는 사무실 쓰레기 3백t을 처분하는 비용만 그동안 720만엔(5천만원가량)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광상회의 'MS 리사이클 페이퍼' 시스템을 이용한 뒤로 이 비용이 한달에 50만엔대로 크게 줄었다.

명광측에서 슈레더 폐지를 비롯한 사무실 쓰레기를 다른 회사보다 10만엔싸게 가져가고, 대신 이들 쓰레기로 만든 화장지를 염가에 공급해준다. 고객인 기업 입장에서 장점도 크기 때문에 올 3월까지 이 리사이클 페이퍼시스템에 가입한 유명회사는 카오 흥은 등을 포함, 50개로 늘었다.

어떻게 보면 이윤이 작은 장사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회수 비용으로 받는 수수료는 별개 아니고, 화장지 장사가 크게 남는 부분이다. 원료값과 판매코스트가 모두 '제로'이기 때문에 1롤당 50엔씩에 공급하는 화장지는 거의 전액 매상고로 남는다.

현재 한 회사당 연간 화장지 공급량이 20만볼에 이르고, 올해 전체 화장지 매상만 1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익률도 높아 20%인 2억엔(15억 원가량)규모, 1년 매상고 125억엔, 경상이익 19억엔인 이 회사는 어떤 종목의 슈레더 기계나 영업 부문보다 이 화장지가 가장 큰 비중의 '수익원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 뉴비즈니스에 손대게 된 것은 다카키라는 상무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환경과 리사이클룸이 불면서 회사 주종상품인 슈레더 기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생이 안된다는게 판매 장애요인으로 대두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기업부터 조그만 영세기업까지 일본 전국의 모든 제지공장을 돌아다니며 슈레더 폐지의 재생 가능성을 찾았다. 그 결과 발견한 곳이 시즈오카현 신영제지. 이곳에서는 4년전부터 슈레더 폐지 뿐 아니라 사진 인쇄지, 비닐 코팅지, 감광지, 복사지 등 그동안 재생 금기품이 섞인 폐지로부터 화장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해두고 있었다. 이 회사와 제휴가 결국은 가만히 앉은채로 폐지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로 발전했다.

명광상회는 화장지 장사에 덩달아 기계도 잘 팔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있다. 이같은 화장지 리사이클을 전제로 기계에 대한 증설주문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현재 설치중인 회사 5사중 1사가 증설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기계 메이커에서 출발해 '환경비즈니스 메이커'로 바뀐데 대해 다카키상무는 이렇게 말한다. "전자-기계산업처럼 소비를 위한 기술만이 기술개발

이 아니다. 앞으로 기술개발과 뉴비즈니스는 환경에 있다"

## 日,공공부문 정보망 구축...美 NI와 연결

일본 정부는 멀티 미디어 시대에 대비해 미국이 전국정보기반(NII)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지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통산성은 이를 위해 교육과 연구분야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컴퓨터에 의한 정보, 통신망을 정비해 미국의 NII와 연결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의 자료를 퍼스널 [7m컴퓨터 [0m로 검색하는 전자도서관의 정비와 연구소의 정보 네트워크, 행정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등을 추진하는데 7월까지 정부안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 <해외산업> 미국서 유행하는 각종 정보기술(1)

첨단정보기술은 활용만 잘하면 기업의 경비를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는 최근 미국에서 기업들이 널리 이용해 재미를 보고 있는 각종 정보기술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일부. \*CAD(컴퓨터원용 설계):레널즈 메틀즈사는 캔에 알루미늄을 덜 사용하고 싶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을 적게 쓰면 캔의 내구성이 약화돼 쉽게 찢어질까 걱정되었다.

포드사는 플라스틱 흡입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무게를 8파운드 줄이고자 했으나 더 가벼운 소재는 쉽게 깨질 우려가 있어 망설이고 있었다. CAD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주었다. 기본모형을 스크린에 집어넣자 컴퓨터가 하중을 받는 각 연결부분의 인장력 등을 계산해 주었다. 포드와 레널즈 메틀즈는 CAD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디자인시 간을 절감함은 물론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디자인부터 작업지시까지 종이를 추방한 제조공정(Paperless

Manufacturing): 유리 및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AMP사에겐 CAD는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IBM의 PES400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디자인을 하면서 번거로운 회의를 대체했다. 완성된 작업지시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장의 단말기로 전송되며 현장 노동자들은 이를 보고 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이같은 방식으로 회사는 생산사이클을 1년에서 한달로 단축했다.

\*서류관리 : 여러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서류가 만들어지고 분배되며 컴퓨터에 저장된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국제표준인 SGLM은 많은 기업들에게 서류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노던 텔리컴같은 회사는 이를 통해 주요 고객인 지역전화회사들과는 물론 수많은 납품업자들과의 오고가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POS터미널 : 처음 도입된 70년대만 하더라도 POS는 단지 계산기의 대응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꼭 유용한 정보기구다. 엄청난 양의 소비재 관련 정보를 총괄하고 분석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카고의 인포메이션 리서치사는 각지의 9천여 소매상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켈로그나 하인즈같은 대기업에게 판매한다.

이들 기업은 경쟁사 제품의 판매동향과 실제 매매가격 등을 매일매일 분석할 수가 있다. \*서버 : PC경쟁이 격화되면서 IBM이나 컴팩같은 대형 컴퓨터 업체들이 서버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내리고 있다. 기업들은 서버를 활용해 여러 곳에 산재한 지점망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 적은 비용으로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8천명의 회원과 9개의 클리닉을 가진 올랜드 의료보호기관은 서버를 이용해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

\*음성인식 : 근래들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크게 발달하면서 유저들은 키보드를 두들기지 않고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됐다. 드래건 시스템 등은 변호사, 신체장애자, 공장노동자 등을 비롯, 광범위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6만단위의 어휘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정보저장시스템 : 멀티미디어 응용기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네트워크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막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며 보호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체엔 소프트웨어사의 ARC등은 훨씬 안전하며 자동이고 관리하기 간편한 기능을 제공해준다.

### 싱가포르, 2천년까지 '인공 정보지능섬' 추진(1)

하이테크의 섬인 싱가포르는 오는 2천년까지 단추만 누르면 모든 정보를 주고 받고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도시, 공식용어로는 지능섬(Intelligent Island)이 되기 위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현재에도 이미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을 비롯하여 일종의 포켓형 무선호출기를 통한 주식거래나 증권시장정보 입수, 전화를 이용한 공중보건정보 검색이나 소득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당국의 "정보기술(IT 2000)"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가정과 사무실, 학교, 공장의 컴퓨터들이 모두 상호 연결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국민들중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4가구중 1가구 꼴이며, 이중 약 10%만이 외부와의 정보소통을 위한 모뎀에 연결돼 있다.

싱가포르 국가전산원(NCB)의 책임자인 고갱화씨는 "IT 2000"계획의 목적은 "사람들이 어느 곳, 어느 때나 온라인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지능섬으로 싱가포르를 탈바꿈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전화기이후의 혁명인 새로운 정보시대의 개벽을 오는 2천년에 맞게 된다"면서 "앞으로 싱가포르인들에게 번잡한

일상사가 보다 줄어들어 여유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NCB는 오는 2천년까지 싱가포르인들이 집에서 대형 전자스크린을 통해 몇몇 단추를 누르거나 음성명령을 내림으로써 업무를 보고 쇼핑이나 은행거래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형 전자스크린은 컴퓨터, TV, 전화, 비디오카메라, 게임기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으로 사진이나 그림 및 정보를 다른 스크린으로 보내거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기집에서 전화를 걸어 양복점의 컴퓨터 스크린과 연결, 전시중인 의복의 디자인이나 크기 및 색깔을 선택한다. 전화를 건 사람의 모습이 양복점의 대형 스크린에 떠오르면서 전자적 모의착복 과정을 통해 여러가지 옷을 입어본 뒤 주문할 물건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 NCB의 주요 파트너들중에는 위성지상중계소와 해저케이블망, 그리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을 갖춘 "싱가포르텔리콤"이 포함돼 있다. BISDN은 단일전화선으로도 여러개의 송신을 동시처리하고 아울러 무선방송을 통해 이용가능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디오 채널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IT 2000"계획중 일부는 곧 실현될 전망이다. 이중에는 싱가포르 국내도서관과 해외 도서관들을 연결하는 "국경없는 도서관"이 포함돼 있다. "국경없는 도서관"을 통해 이용자들은 그들의 가정이나 사무실, 또는 국내도서관에서 멀티미디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세기말까지는 시내 광장이나 기차역 주변 등지에 세워진 간이정보박스에 부착된 TV화면상의 아이콘(컴퓨터의 각 메시지를 나타낸 그림문자)을 눌러 음악화나 영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거나 입장권 가격을 자신의 은행구좌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고 고씨는 설명했다.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며 급속도로 추진

되는 싱가포르의 이같은 작업은 싱가포르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돕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싱가포르의 공공, 민간부문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용된 자금만도 30억 싱가포르 달러(약 19억달러)를 상회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텔리콤"은 텔리콤 하부구조 개발에 5억여 싱가포르달러(약 3억2천여만달러)를 지출했다. 그결과 무역업체들은 지난 89년에 도입된 "트레이드네트(TR ADENET) 전산 시스템"에 가입함으로써 2시간 정도 소요되던 무역서류의 처리를 1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 "컴텍스쇼"아시아서도 열린다

세계 최대 컴퓨터전시회인 컴텍스쇼가 아시아에서도 열린다.

컴텍스 쇼의 주관업체인 미 인터페이스그룹은 95년 10월부터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컴텍스 쇼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컴텍스/아시아"란 이름으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미인터페이스 그룹과 싱가포르 컴퓨터 산업연합(SFCI), 타임즈 퍼블리싱사의 국제회의 및 전시사업부문이 주관한다. 인터페이스 그룹의 셸던 애덜슨 회장은 "컴텍스/아시아"는 전세계 전자 업체들에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리우 타임즈 퍼블리싱사 부사장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자시장은 올해 1천2백5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컴텍스/아시아"는 전세계 기업 간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폭스, 미국 3대네트워킹 지방국을 매입

미국 방송회사인 폭스 브로드캐스팅사는 23일 지방국운영회사인 뉴월드 커뮤니케이션즈가 소유

한 CBS, ABC, MBC의 미국 3대 네트워크 지방국 12국을 5억달러를 투자하여 산하에 둔다고 발표했다.

폭스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디어왕인 마톡씨가 경영하는 유스사의 자회사인데 뉴얼드측에서도 이미 동의한바 이번 대규모 계열변경으로 미국 3대 네트워크가 지배해온 미국 TV업계의 세력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 日CATV협, 신전전과 방송/통신 융합 도모

일본의 CATV협의회는 24일 풀서비스 네트워크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방송부터 통신까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차세대 CATV를 신전전의 통신망을 사용해 전국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위원회는 동급(東急)케이بل텔레비전 등의 CATV 대기업, DDI등 신전전 각사, 상사, CATV 기기메이커 등이 참가하게 된다. 또한 AT&T, 일본고속통신 등도 참가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전국 CATV가 네트워크화 되면 NTT 대항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초기 22사였는데 그후 참가신청이 이어져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 관계자에 의하면 AT&T가 참가를 표명한바 AT&T의 참가에 문제가 없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어 AT&T의 참가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는 전화 등의 통신을 사업화하는 환경정비를 하기위해 참가기업의 신전전과 CATV국을 연결해 전국 네트워크화를 검토하는외에 간이형 휴대전화, 퍼스컴통신, 원격 의료진단, TV쇼핑 등도 실험할 방침이다.

IBM, 통신망 접속기술 연구에 착수 정보수퍼하이웨이구상에서 뒤져있던 IBM이 전화, CATV 등 호환성이 없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망 접속기술의 개발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IBM 관계자에 의하면 전화회사와 CATV회사는 IBM의 호환기술을 통해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

신판매업자 등의 네트워크와 접속할 수 있게된다. 예를들면 동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시스템사이의 갭을 해소하여 소비자는 TV를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셋터 등을 구입할 수 있게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통신판매업자의 컴퓨터가 받는 주문이 CATV네트워크를 통해 크레디트카드회사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지불수속을 하게된다.

더우기 배송회사의 컴퓨터가 정보를 받아 배달스케줄을 확인하게 되는데 시스템 전체는 TV화면의 메시지에 반응한다.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도 4개의 컴퓨터시스템 접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접속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IBM은 이미 동사의 베테랑인 페르난도 세라뜨씨를 팀장으로 하는 신기술 판매담당부문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 日, 아시아 차세대통신망 표준화 추진

일본 우정성은 아시아 정보수퍼하이웨이(AII)와 장래의공중/육상 이동통신시스템(FPLMTS)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구축을위해 아시아지역 통신표준화에서 협력체제 확립을 호소한다는방침을 결정했다. 아시아지역에서 표준화활동을 촉진하여 차세대네트워크의 공통화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이 지역의고도정보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25일부터 타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공동체(APT)의 관련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으로유럽전기통신표준화협회(ETSI)와 같은 지역 공동의 표준기관설립도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의해 일본으로써는 우선아시아지역에서 국제적인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구축에서 앞서간다는생각이다.

### 日, 멀티미디어대비 가정용 퍼스컴 보급도모

일본전자기계공업회 세키토모회장(NEC 사장)은 이사회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동향과 멀티

미디어문제에 대해 말했는데 경기에 대해서는 3-4월에도 예상을 상회한바 업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최악을 벗어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상승경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포함해 여러가지 해석이 이루어져 약간 혼란한 경향이 있지만 세키모토회장은 멀티미디어는 종래의 전화, 팩시밀리, 데이터의 세계에서 음악, 화상 등 여러가지 정보를 채용한 세계가 대상으로 이런 점이 가능하고 편리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단말로 퍼스컴의 가정내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단말을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메이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도시바아메리카, 95년 멀티미디어시장 참가

도시바 아메리카 컨슈머 프러덕트사의 사장은 캘리포니아주 칼스베트에서 개최된 전미국 세일즈미팅에서 95년에 미국 민생용 멀티미디어시장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92년에 IBM, 애플컴퓨터와 제휴하여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개발에 합류한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었지만 민생용시장 참가시기를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사의 사장은 이제까지 고품위 디지털 비디오를 만족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개발은 코스트면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반도체 메이커라는 백그라운드를 살려 코스트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목표가 세워졌는바 멀티미디어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밝히지 않았는데 디지털 풀모션 비디오에 역점을 둘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사장은 도시바 아메리카 컨슈머 프러덕트사가 비디오회사라는 현재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하여 향후 통신, 카일렉트로닉스, CCD

와 LCD 응용분야에 적극 투자를 하며 각분야가 현재의 비디오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 日통산성, 고도정보화프로그램 정리

일본의 통산성을 19일 고도 정보화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정책구상인 고도정보화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산업구조심의회(통산성의 자문기관) 정보산업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방식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통신 인프라가 혼재, 경쟁하는 복합적인 환경을 원한다고 하여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광화이버 통신 일변도의 정비추진 방향을 비판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시장프로그램으로 제시한 교육, 연구, 의료, 복지 등 공적 5개분야의 정보화 추진및 독창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대학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정보화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고도정보화 프로그램은 미국의 전미국 정보기반(NII) 구상이나 유럽의 트랜스 유러피언 네트워크(TEN)구상과 같은 종합적인 정보화정책 구상인데 NII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은 공공부분의 정보화와 민간의 지원에 그치고 민간주도로 정보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있다. 또한 정책추진에는 우정성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집약한 정부전체의 정보화구상 책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향후 관계기관사이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생각이다.

쌍방향의 광대역통신 인프라는 광화이버를 사용한 B-ISDN망이 기술적으로 가장 유력하지만 향후 영상압축기술 진보에 의해 필요로 하는 대역의 폭이 줄어들어 현행의 전화선이나 무선으로 많은 용도에 대응할 수 있게될 가능성도 지적하였다. 이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쟁에 의한 기술혁신성과를 살림으로써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통신인프라가 혼재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